



광주 예술의 거리 ‘어여쁘다 공동’

아트경매·예술영화 상영·갤러리 산책 등
4월 1일~10월 28일
매주 토요일 열려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는 화랑·표구점·소극장·전통찻집 등이 100여개가 자리잡으며 성업했지만 현재는 미술시장 불황으로 인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상가와 사무실, 학원 등이 쉬는 주말에는 황량한 분위기마저 감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찬란한 광주 예술잔치 나비야 공동가자’행사는 예술인·상인 등이 예술체험·공연 등을 진행하며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광주시·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의 하나다.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이 주관 단체를 새롭게 선정하고 더욱 다양한 기획으로 시민들을 찾아온다. 오는 4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7시 동부경찰서부터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펼쳐진다.

주관사를 맡은 문화네트워킹그룹 ‘다정다감’ 조현희 총감독은 “올해는 예술의 거리에 아름다움을 찾아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주제를 ‘어여쁘다공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프로그램은 아트경매, 예술영화

상영, 갤러리 산책이다.

예술의 거리 변영회기획

단과 함께 진행하는 아트경매는 중앙초 사거리 앞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문 경매사가 나서 지역 작가 작품을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1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며, 재미있게 들려주는 작가와 작품 소개는 덩이다.

예술영화(오후 4~6시)는 진옥선 경매장에서 상영한다. 4월1일 ‘우먼 인 골드’를

시작으로 ‘르누아르’,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세라핀’, ‘괴테’ 등을 준비했다.

전문 도슨트가 이끄는 ‘갤러리 산책’도 눈에 띈다. ‘갤러리의 문이 열린다’를 주제로, 고서당, 고전방, 갤러리S, 갤러리B, 무등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조각의 거리 등을 살펴본다. 오후 3~5시 동부경찰서 앞에서 출발하며 1시간이 소요된다.

또 종이로 꽃을 접으면서 첫사랑 이야기

를 들려주면 바텐더가 분위기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첫사랑칵테일바’도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인기프로그램도 그대로 진행한다. 클래식연주를 비롯해 버블쇼, 마술쇼, 인형극 등 어린이 발길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했다.

미술심리치료, 인간군상만들기, 에벌레장난감만들기, 3D프린팅, 플라워아트, 석고손도장만들기, 타로점, 풍선아트 등 40여가지 이색 예술체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숨겨진 명소와 갤러리를 찾아 스탬프 10개를 찍어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투어 ‘신궁동유람’도 운영한다.

그밖에 거리 입구(동부경찰서 인근)에는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대형간판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삼고, 거리 곳곳에는 대형 파라솔을 배치해 휴식처를 제공한다. 이색벽화, 아트로드, 로드카페 조성 등 경관개선사업도 진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blog.naver.com/butterflyart, www.facebook.com/Gwangjuartstreet) 참조. 문의 062-224-03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홍신자

예술마루 브런치 콘서트 스타트

23일 ‘춤꾼 홍신자의 거울’

김성녀·곽정 등도 참여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가 2017 브런치 콘서트를 시작한다.

올해는 개관 5주년을 맞아 새롭게 구성한 ‘Art&Artist 브런치 콘서트’를 선보인다.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소극장 무대에 올라 공연과 함께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23일 오전 11시 예술마루소극장에서 열리는 올해 첫번째 브런치 콘서트 주인공은 1세대 전위예술가로 불리는 현대 무용가 홍신자씨다. ‘고도의 춤꾼 홍신자의 거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홍씨는 거울(mirror),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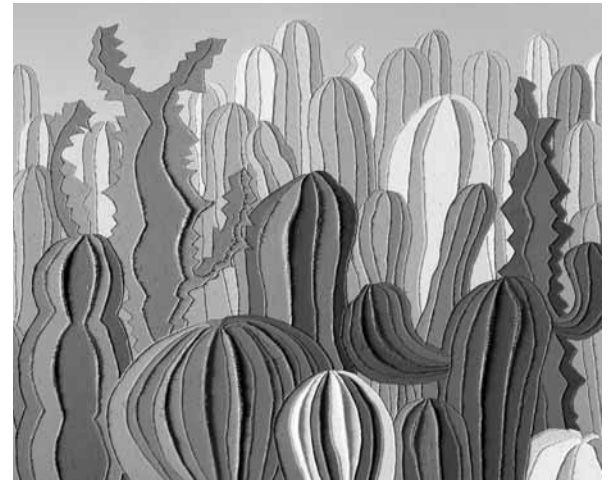
(rain), 정원(Garden), 여정(journey) 등을 콘셉트로 인간, 자연 등을 표현한다. 홍씨는 또 안무가이자 무용가, 명상가, 보컬리스트, 작가로서 살아온 인생 여정을 들려줄 예정이다.

5월에는 국립창극단을 이끌고 있는 배우 김성녀가, 9월에는 하피스트 곽정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강현주씨와 공연 칼럼니스트 김일송씨가 이끄는 기존 브런치 콘서트도 새롭게 단장했다.

올해는 ‘음악으로 그린 그림’을 콘셉트로 4월19일부터 대극장에서 시작된다. 올해는 세기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 관련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며 4월 주제는 ‘사랑과 꿈’이다. 전석 2만원. 문의 1544-766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수영 작
‘흙 선인장’

한평갤러리 ‘한평일보전’

대인예술시장 4월 8일까지...청년 여성작가 5명 참여

대인예술시장별장프로젝트가 한평갤러리에서 18일부터 4월8일까지 ‘한평일보-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다’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강예진·서가형·안수영·정영소·정지혜 등 청년 여성 작가 5명이 참여해 경쟁사회에 대한 비판과 청년 위기를 이야기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부제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다’는 단지 꿈꾸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상징한다.

강예진 작가의 ‘불나방’은 쥐엄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여성이 전구를 끌어안은 모습으로 묘사했다.

서가형 작가가 작업한 ‘connected’는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또 안수영 작가는 ‘흙 선인장’을 통해 자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정영소 작가의 ‘우주를 줄게’는 별을 소재로 낭만 가득한 삶을 표현했다. 정지혜 작가의 ‘island’ 연작은 각기 다른 섬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8 광주비엔날레’ 카피 공모 1등작 선정

‘설레임 2018광주비엔날레! 이글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Feeling 2018광주비엔날레! Coming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진행한 ‘2018 광주비엔날레’ 카피 공모에 이주복씨의 ‘설레임 2018광주비엔날레! 이글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Feeling 2018광주비엔날레! Coming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등으로 선정됐다.

지난 14일 홍보마케팅부 1차 심사를 통과한 11명에 한해 15일 광주비엔날레 임원진 2차 심사를 거쳐 총 8명이 최종

선정됐다.

2등에는 신은혜 씨의 ‘Welcome 2018광주비엔날레! Go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김현진 씨의 ‘감동에 감탄을 더하다! 2018광주비엔날레@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랐다. 선정된 카피는 각종 홍보물, 온라인 매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야외상설브랜드공연창작지원사업’ 6개 단체 선정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이 ‘야외상설브랜드공연창작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브랜드공연과 거리공연으로 나눠 총 6개 단체에 1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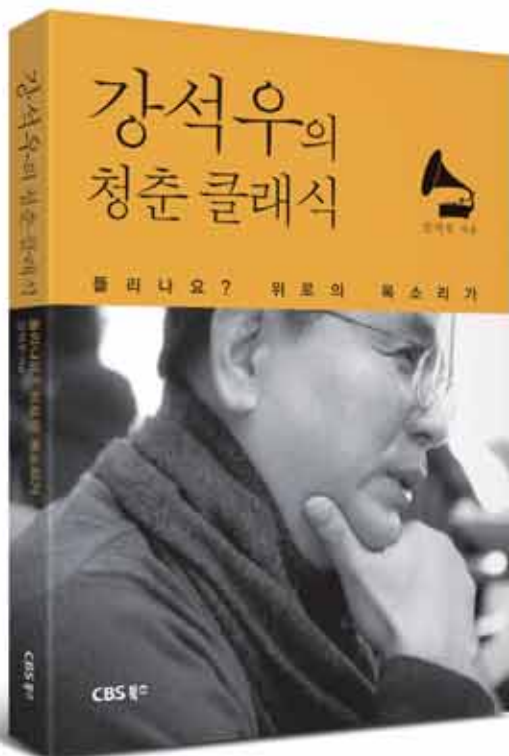
브랜드공연에는 다원분야 전통문화연구회 ‘열수’(대표 김양균)의 ‘타악퍼포먼스 무들의 락’ 1개 단체가 선정됐다. 거리공연에는 국악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대표 박해라)’의 ‘창극으로 보는 전래동화’, 무용 ‘비상무용단(대표 박종임)’의

‘난장(亂場)-판따라 I·II’, 연극 ‘전문 예술단체 극단 파랑새(대표 임흥석)’의 ‘창작 및 우수레파토리 인형극 거리공연’, 연극 ‘극단 연우랑’(대표 이현기)의 ‘마당창극 토생외전’, 다원예술 아프리카타악그룹 ‘아냐포’(대표 양인선)의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ANyA FO’이 뽑혔다.

선정된 6개 단체는 오는 4월1일에 개막하는 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해 12월까지 매월 1회 무대에 올를 예정이다. 문의 062-670-74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음악이 있어 아름다운 삶, 살아온 이야기가 있어 아름다운 음악!



우리 시대의 클래식 ‘전도사’ 강석우의 첫 에세이!
그가 들려주는 65곡의 주옥 같은 음악과 인생 이야기

강석우는 가슴이 따뜻하고 깊은 친구다. 나는 힘들었던 시절 이 친구의 따뜻한 정을 받고 큰 힘을 얻기도 했다.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와서 더욱 공감이 큰 그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 글들이 화롭고 지친 사람들을 꿈꾸게 해주길 바란다. _ 송승환(배우, 공연 제작자)

어려울 수도 있는 클래식을 편안하게 들려주는 그의 솜씨에 내심 감탄했다. 라디오 청취율이 높은 것도 그 덕분일 텐데, 이 책도 그러하다. 휴식과 위트가 필요할 때 이 책은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_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리스트)

강석우의 청춘 클래식

강석우 지음 | 46면형판 | 268쪽 | 값 13,000원 CBS 북스